

과학교육 초기 기틀 마련한 ‘백아덕’

(Arthur Lynn Becker, 1879~1979)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한 국 미술사를 쓴 선구적 서양 학자에 에블린 맥쿤이란 여성이 있다. 그녀가 영어로 쓴 ‘한국미술사’와 ‘한국의 병풍’ 등은 국내에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바로 그녀가 연희전문학교의 첫외국인 물리학 교수인 베커(Arthur Lynn Becker, 白雅應, 1879~1979)의 딸이다.

그런데 맥쿤 여사는 한국 미술사에 관한 책들 말고도, 자신의 아버지 베커에 대한 책도 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77년에 발행된 이 책은 160쪽의 자그마한 책인데, 제목이 ‘미시간과 조선’이다. 아직 국내에 번역된 적이 없는 이 책은 아버지의 일기와 그 밖의 자료들을 모아 정리해 낸 것이라고 머리말에 밝히고 있다. 최근 필자는 이 책을 아주 재미있고도 감동적으로 읽고 있다. 이 책은 미국 미시간주의 시골 출신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베커가 어떻게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활동했었가를 소개하고 있다.

‘교육’ 선교사로 발탁, 조선에 파견

지금 연세대학교의 시작은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바로 이 초창기의 연세대학교(당시 이름은 연희전문학교)에서 첫 물리학 교수가 된 사람이 바로 베커였다. 그는 그 후 이 대학에서 부학장, 지금으로 치면 부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이 땅에서 물리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던 최초의 서양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다음 조선에는 대학교육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학 설립을 억제했다. 그런 가운데 선교사들 사이에 먼저 대학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조선인의 교육을 통해 그들의 본래 목표인 선교 사업, 또는 복음 전파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조선에서의 일생을 기록한 ‘미시간과 조선’을 보면 베커는 대학 4학년 때 ‘교육’ 선교사로 발탁되어 조선에 파견되었다. 그때까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선교사들이 여럿 조선에 들어오는 했으나, 본격적으로 조선에서 학교를 시작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가는 베커가 처음이었다. 물론 여기에도 단서가 붙어야 할 것

이다. 사실은 그에 앞서 이미 험버트 등 미국인 교사 3명이 조선에 들어와 육영공원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주로 영어를 가르친 일도 있고, 그 밖에도 여러 선교사들이 이미 배재, 이화 등의 학교를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베커가 첫교육선교사라는 설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처음 자연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과학교사로 조선에 온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그는 연희전문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들어간 뒤에는 박사학위까지 받은 학구파였다. 원래 그는 미시간주의 남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 ‘리딩’에서 1879년 농부 엘머 베커와 어머니 매기의 아들로 태어났다. 4남매 중 장남이었던 그는 고향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그대로 눌러 앉아 아버지를 따라 농사일을 할 생각이었으나, 교회 목사의 권고로 지금도 있는 앨비언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사실 그는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될 정도로 집이 가난했다. 그러나 학장은 목사의 소개로 찾아간 소년 베커에게 당장 학교 청소 일을 맡겨주면서 입학을 허가했다. 대학 3학년 때 그가 외국 선교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자 감리교회 본부는 그에게 외국 진출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처음 그는 중국 광둥기독교대학에 교사로 가기로 추천받아 그렇게 결정할 상태였다. 하지만 4학년 때 어느 날 앨비언대학을 방문한 감리교 본부의 무어 감독이 학생들에게 중국보다는 조선에 교육자가 더 필요하다는 설교를 했다. 이 말을 들은 베커는 조선에 가기를 자원한다.

아마도 이는 이미 미국에 제법 알려져 있던 중국보다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에 나가는 것이 개척자로서 더 보람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외국에 파견 보내는 미국 기독교사회의 열정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번 이 결정이 내려지자 무어 감독은 당장 1903년 3월에 자기가 조선에 나가니 함께 갈 것을 요구했다. 대학당국은 회의의를 열어 4학년생이던 그에게 특별 졸업을 허락하여 3개월 일찍 졸업을 시키면서까지 그의 조선 파견을 지원했다. 그의 특별 졸업에는 학장의 졸업선물이 있었

음은 물론이고, 고향의 교회에서는 그에게 기념으로 카메라를 선물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이제 겨우 사귀기 시작했던 여학생 루이스 앤 스미스에 게 정식으로 청혼하여 허락을 받기도 한다. 이 여성이 2년 뒤인 1905년 조선에 와서 결혼하여 그의 아내가 되었고, 앨비언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한 그녀는 자신의 피아노를 가지고 조선에 들어왔다. 서울에는 이미 피아노를 가져온 사람이 먼저 있었을 테지만 그것이 평양의 첫피아노였다. 또 바로 이 여성이 연세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후에 연세대학교 음악학과를 창설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수학, 화학, 물리학 등 공부하며 가르치

베커는 처음에는 평양에서 교육사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장로교가 세운 숭실학교가 제법 잘 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를 파견한 감리교측에서는 교회의 소규모 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조선 아이들에게 영어와 산수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의 조선에서의 교육사업은 시작되었다. 그러는 한편, 그는 조선에 처음으로 체육 또는 운동을 보급하는 데도 한몫을 했다. 6피트 키의 건장한 시골 청년이던 그는 대학에서 인기 있는 농구 선수였고 여러 가지 운동에도 능한 편이어서 틈나는 대로 여러 가지 운동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는 조선 청년에게 운동을 가르친 스포츠맨이기도 했다.

평양의 감리교회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던 그는 1910년에는 안식년 휴가를 얻어 가족과 함께 만주-시베리아-유럽을 거쳐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세계복음선교회 회의에 참석하고 대서양을 건너 고향을 찾았다. 7년 만의 첫나들이였다. 그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얻게 된 것은 이 외출 덕분이기도 하다. 그는 이를 기회로 이듬해 여름까지 머물며 모교 앨비언대학에서 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동양의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화학의 기초'라는 그의 학위 논문에서도 그가 조선 학생들에게 화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는 대학에서 주로 수학을 공부했는데, 대학원에서는 화학을 공부했다. 아마 그는 철저히 교육자로서 필요한 공부를 따라다닌 것으로 보인다. 당시 평양에서는 화학을 가르칠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꼭 10년 뒤인 1921년에는 미시간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로써 베커는 수학, 화학에, 물리학까지 두루 공부를 했음을 알게 된다.

베커의 일생을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칼 루퍼스

(1876~1946)다. 루퍼스는 베커의 동급생으로 앨비언대학을 다녔을 뿐 아니라, 3학년 때 같은 집에서 하숙한 친한 관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 베커와 함께 연세대 수학, 물리학과의 교수로 활동했다. 베커가 물리학자라면, 루퍼스는 천문학자로 성공했다. 루퍼스는 뒤에 베커를 통해 조선의 학생 17명에게 장학금을 보내기도 했는데, 17명에게 각각 15달러씩이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돈으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그때는 그만하면 큰 돈이었다. 당시 루퍼스와 베커가 하숙하던 집에서는 한 달에 10달러로 자고 먹고 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98세 때도 하루 6시간 일하며, 열정적 삶 살아

루퍼스는 1907년 한국에 와서 평양에서 근무하다가, 연희전문교수로 물리학과에서 베커와 함께 근무했다. 그는 베커보다 한국 천문학의 유산을 세계에 소개하는데 더 크게 이바지한 일도 있고, 그가 쓴 한국의 옛 천문도에 대한 논문 등은 지금까지도 한국과학사에서 인용되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루퍼스는 뒤에 미시간대학 천문학 교수가 되어 한국의 제자 이원철이 그 학교에서 1926년에 한국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게 하기도 했다. 반면, 베커는 물리학 교수로서만 주로 활약했고, 루퍼스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분야를 개척한 일은 없다. 하지만 루퍼스가 뒤에 미시간대학에 돌아가 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에 나왔던 것처럼 베커도 뒤에 모교 앨비언대학으로 돌아가 석사학위를 받고, 또 다음 기회에는 미시간대학에 가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1921년)를 받기도 했다. 당시 조선에 와있던 선교사나 교사들 가운데 상당히 학구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해 준다.

딸의 글에 의하면 1977년 '미시간과 조선'을 쓸 때 아버지 베커는 이미 98세였지만,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정확히 언제 작고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1979년에 작고한 것으로 보이니까, 꼭 100년을 이 세상에 살았던 것이다. 베커는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 초기에 가장 큰 공헌자 중 하나다. 1930~31년에는 배재고등학교 교장을 맡았던 적도 있는 그는 1939년 5월에는 언더우드 교장 집에서 그의 환갑잔치를 열어준 일도 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일제가 미국인 등을 거의 추방하고 있는 단계였고, 그도 역시 1940년 11월에 조선을 떠났다.

베커는 한국 물리학 내지 한국 과학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건만, 오늘날 그를 추억하게 해주는 대목은 연세대 과학관 벽에 붙여 놓은 그의 흉관이 전부인 듯하다. ㉓